



2026. 7. 2.(수) 조간 (온라인 보도) 2026. 7. 1.(화) 11:00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수칙 꼭 확인하세요!

- 국립소방연구원·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홍보(캠페인) 실시
-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 홍보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정 내 조리의 편의성으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종이 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연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2021. 1. ~ 2026. 4.)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총 490건이며, 그 중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170건(34.7%)를 차지했다.
- 이에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뜨거운 제품 표면과 바스켓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에 따라 권장 온도·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립소방연구원 김연상 원장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인공 지능(AI) 기반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원인분석팀	책임자	팀 장	김수영 (041-559-0541)
		담당자	연구사	이훈기 (041-559-0543)
	<총괄>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담당자	연구관	박수진 (043-870-5333)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책임자	팀 장	김소영 (043-880-5421)
		담당자	조사관	조해령 (043-880-5425)

